

# Hospice 활동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호** 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유교적 윤리관이 지배하는 사회속에 살면서, 죽음은 ‘끝’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부정한 것으로 배우므로, 이런 죽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 죽음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배웠지만, 그 확신 또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에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다.

이런 갈등 속에서봉사자가 돌보는 환자에게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터 이미 삶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죽음은 부활로 가는 한 과정이다.”라고 선언하려면 우선 봉사자 자신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이 서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는 봉사자들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한 것 가운데 몇가지를 여기에 실는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님께서 호스피스 봉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2) 회원님께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 (3)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에 변한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4) 돌봐주던 환자 가운데 인상적이거나, 감동적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경험을 써 주십시오.
- (5) 회원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 김혜명 자원봉사자

- 1) 호스피스 활동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교육이 있어서 받았고, 또 자원 봉사자가 되었다. (직접적인 동기는 오빠가 폐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갔는데, 그때 호스피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생각해서 였다.)
- 2)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 우선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죽음은 항상 두렵다.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다.
- 3)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며, 가까이 있는 것이다. 식구들에게도 “엄마의 죽음”에 대해 예사로 말할 수 있고, 갑자기 죽을 경우를 생각해 준비해 둔 것도 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4) 나는 환자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그저 곁에 있어 드릴뿐……, 그리고 내 방문이 환자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뿐…… 병원생활이 길어 자연히 여러번 방문했던 환자가 있었다. 방문해서 함께 한 시간들이 인상깊었고, 또 소중했다.

5)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들일 생각이다. 내가 만약 병에 걸려 이 병원에서 죽게 될 경우를 생각해 점 찍어둔 간병인도 있다.

#### 문한림 내과의사

1) 암 환자를 돌보는 내과의사로서 필수적으로 종말환자를 돌보게 되었으므로.

2) 죽는 과정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뒤에 남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짐을 느꼈다.

3) 죽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5)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죽고 싶다.

#### 오원자 봉사자

1)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가족 가운데 호스피스 대상이 생길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 교육을 받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죽음이란 두려워 할 것이 아니며, 죽음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낌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불평불만이 참 많은데, 때로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환자들을 보면서, 나 역시 세상 일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덜 해졌다.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자고 다짐했다.

4) 죽을 앞에서 참 신앙을 보여주신 두분이 생각한다. 한분은 통증에 많이 아파하면서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간호하는 가족에게도 고통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으신 분이다. 언젠가 한번은 내가 방문했을 때 그분은 기도와 성가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당신이 겪는 작은 고통으로 대신 봉헌하고 싶다고 말씀 하시던 기억이 남는다. 그리고 또 한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은 상속을 놓고 다투고 있어 내 가슴이 무척 아팠다. 하지만 환자는 이런 소란스러움을 섭섭해 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5) 보속의 기회가 주신다면 고통을 받으며 죽고싶고, 또 건강하게 죽을 수 있다면 쓸수 있는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

#### 최기자 간호사

1) '85년 병원에 입사한 뒤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하고 일반병동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던 중, '88년에 호스피스 병동이 생기면서 여기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입사부터 갖고 있던 관심이나 호스피스 병동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던 그 동안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한다.

2) 어릴적 교우가 임종하면 빠지지 않고 찾아가 임종과 임관같은 모든 절차를 도우시던 아버지의 큰 손을 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 죽음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는 시작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3)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있다면 천국에 대한 희망과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4) 60대의 간암 여자 환자로, 개신교 권사님이셨다. 슬하엔 2남1녀를 두셨고, 자녀들은 지극 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피셨다. 환자분은 신앙이

돈독해서 어께 뒤로 상처가 폭파여 하루 대어섯 차례씩 dressing을 바꿔줘야 할 정도로 분비물이 쏟아져 나오고,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도,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며 꿋꿋이 견디셨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 기쁘게 임종을 맞이하셨다. 이 모습을 통해 나는 천국을 보는 듯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가 그분에게는 넉넉히 있음을 인상깊게 느꼈다.

#### 김경렬 자원봉사자

1)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다.

2) 교육을 받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무서움 없이, 주님 곁에 한 걸음 다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3) 전에는 우선적으로 내 가족과 나 자신을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4) 환자가 영세를 받고 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모습과 가정 방문 때 제일 더러웠던 부분을 깨끗이 닦아 드렸더니, 식구들도 못해 주는데 봉사자가 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오른다.

5)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남편에게 유언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안구를 기증하겠다.